

**보도자료**

2011년 10월 20일(목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과 김광수 과 장 (☎750-2770)

개인정보보호과 오승교 주무관 (☎750-2774)

**인터넷 비즈니스의 대표 134개 기업들이 참여한  
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 실시 완료****- 1천4백만건의 비밀번호 변경 및 4만3천건의 아이핀 전환 -**

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·노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한 달 동안 “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을 실시했다.

인터넷 기업 23개 사업자가 참여한 작년과 달리, 올해에는 통신, 포털, 언론, 쇼핑물, 금융, 의료 등 인터넷 비즈니스의 대표 134개 기업들이 캠페인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인터넷 비즈니스 전 분야에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“2011 자기정보보호 캠페인”은 인터넷상의 ‘비밀번호 변경’,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‘아이핀(i-PIN) 전환’, ‘휴면계정 정리’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추진되었는데, 이번 캠페인에 JYJ가 모델로 참여하여 일반인들의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.

특히, TV 및 라디오, 극장·인터넷·SNS·대중교통 등 다양한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캠페인을 홍보한 결과 약 14백만개 아이디의 비밀번호 변경, 43천개 아이디의 주민번호 아이핀 전환 등 작년에 비해 이용자들의 참여도가 증가하여 이번 캠페인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.

방통위는 "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·노출 및 도용 등과 같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"고 말했다.